

## 主 穀 政 策 의 反 省

金 文 植

(서울大農大教授)

- I. 序言
- II. 所得增大와 食品消費패턴의 變化
- III. 쌀需給과 農地資源
- IV. 쌀의 生産過剩에 따르는 諸문제
- V. 生産計劃의 再調整과 資源利用計劃
- VI. 結言

### I. 序 言

70年代에 들어서 統一系 새 벼品種의 開發과 普及 및 그에 따른 一聯의 새 技術開發은 쌀의 增收을 크게 높힘으로써 지난날의 모자랐던 쌀 數量이 75년부터 남아돌기 시작하였다.

一角에서는 쌀이 남아 돌 理가 없고 生産量推計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의 표시가 있었으나 75년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쌀은 계속 남아돌아 그 貯藏施設의 不足에 골머리를 앓게 되고 지난 76米穀年度에는 약 5백만石의 在庫를 移越시키게끔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이 쌀이 남아 돌게된 데에는 生産側의 增産에만 緣由한 것이 아니고 需要側의 變化에도 原因이 있었던 것이다.

近來에 經濟의 高度成長과 輸出增大로 인해서 國民所得이 增加를 계속해왔고 이같은 所得增大는 쌀과 보리쌀에 대한 消費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65年頃만 하더라도 쌀에 대한 需要의 所得

彈力係數가 0.4안팎이던 것이 近來에 와서는 負值<sup>1)</sup>로 바뀌었으며 이같은 所得彈力係數의 相對的인 非彈力化傾向은 쌀에 대한 消費를 減退시킴과 아울러 國民의 食品消費패턴을 크게 변화시켰다.

所得이 높아짐에 따라서 쌀밥보다는 小麥粉食化하는 傾向을 비롯하여 穀類보다는 乳·肉·卵類를 더욱 選好하게 되고 加工된 即席食品을 더 많이 需要하는 方向으로 消費패턴은 變化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人口가 증가함에 따라서 쌀 消費는 늘게 마련이지만 1人當 쌀 消費量은 지난날의 130kg안팎에서 최근에는 120kg안팎으로 줄게 되어 쌀에 대한 需要增加率은 漸減率로 增加하고 있어 쌀의 增産이 종전의 增産率로써 계속 生産되어진다면 남아도는 쌀의 在庫量은 해가 거듭함에 따라서 더욱 불어날 것이 예상되고 이같은 過剩生産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어질 것이 예상된다.

남아도는 쌀을 貯藏하기 위한 施設문제, 過剩生産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米價의 下落, 마침내는 米穀生産에서의 缺損과 農家所得의 停滯, 農地를 비롯한 諸資源의 不合理한 利用의 露呈 등 許多한 문제들이 수반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물론 쌀의 지속적인 增産이 意外로 世界的인

凶作으로 인한 食糧不足을 맞아 우리나라 쌀이 좋은 國際價格으로 世界市場에 팔려나갈 수 있게 되어 많은 外貨를 벌어들일 수 있는 機會를 갖게 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서 볼때 後者の 경우보다는 前者의 경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日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쌀의 生産過剩으로 인해서 많은 犧牲을 치루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렇다면 현재의 쌀增産趨勢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가할 것이며 지금까지 계속해 온 벼品種改良과 그 普及施策을 어떠한 方向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종전에 계속해오던 쌀값支持政策에 대한 계속여부를 어떻게 결정지어야 할 문제인지 등등을 再檢討해 가지 않으면 안될 時點에 처해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所得增大에 따르는 國民營養의 向上과 食品消費패턴의 變化에 부응할 수 있는 食糧需給政策도 아울러 再調整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實情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아마도 이들 문제는 農地의 將來指向的 利用 계획의 수립의 문제까지도 擧論되어야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註1) 農協中央會調查部, 農業統計要覽, 1977, p. 96

## II. 所得增大와 食品消費패턴의 變化

우리가 쌀生産政策을 검토함에 있어서 현재 보다는 앞으로 7,8년을 내다본 1986년도 (第5次 經濟開發 5個年계획이 끝나는 해)의 經濟實情을 예상하고서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韓國開發研究院에서 추정 한 長期經濟社會發展에 관한 보고서<sup>1)</sup>에 의하면 1986년도에 總人口는 4,208.8萬여명이 될 것이고 農家人口는 1,041.1

千여명이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그리고 農家人口는 1976년도의 1,315萬여명에서 86년도에는 274萬여명이 줄게 될 것으로 계산되어져 있다.

한편 1人當 國民所得은 8년후인 1986년에는 3,857달러(經常價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때에 가서는 國民의 칼로리를 비롯한 營養攝取面에서 先進國型에 接近하게 될 것이며 위의 開發研究院의 推計에 의하면 1日 1人의 칼로리攝取量에 있어서 1976년도의 2,390칼로리에서 86년에는 2,712칼로리로 불어날 것으로 보고 蛋白質攝取에 있어서는 1人1日에 76년도의 71g에서 86년도에는 84g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고 특히 動物性蛋白質攝取에 있어서는 76년도의 15.2g에서 약 10g이 더 많은 25.7g로 불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攝取熱量과 營養價上의 變化에 대한 豫想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食品別 消費量變化는 大體로 다음과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첫째 國民 1人當 所得水準이 3천달러를 넘어서면 1人當 穀物消費量이 크게 감소하고 動物性食品消費量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지난 77년도의 우리나라의 1人當 쌀消費量은 年間 120kg안팎이었으나 86년도에 가서는 90kg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sup>2)</sup> 動物性食品消費量은 현재의 약 8.3kg에서 그의 5배에 해당하는 41kg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유消費量에 있어서는 지난 77년도에 1人 1日에 19.4g (9日間 1合, 180ml에 해당)을 소비했지만<sup>3)</sup> 86년도에 가서는 그의 5배에 해당하는 1日1人 약 100g정도 소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肉類소비에 있어서는 지난해 1人1日에 22.7g(1個月에 600g 1斤소비)을 소비한데 대하여 89년도에 가서는 그의 약 5배에 해당하는 약

100g을 소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계란은 현재 1인 3.4일에 1개꼴로 소비하고 있으나 86년頃에는 현재의 3배에 해당하는 1인1일 1개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이 계산은 대체로 先進國의 1인當國民所得 3,500달러 水準 때의 食品消費패턴을 따를 것으로 본데서 나온 數値이다.

어쨌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所得水準이 높아질수록 動物性食品이 증가하고 穀物消費量이 감소하리라는 것은 예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다음 둘째로 所得이 높아감에 따라 濃蓄化되고 貯藏性이 높고 消化에 간편한 加工食品의 消費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果實의 즙을 내어 쥬스로 한다던가 果實통조림, 또는 햄, 초-세지, 라면류 등 加工食品의 消費量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셋째로 所得증대에 따라 쌀, 보리등 消費量은 떨어지나 粉食化로 인해 小麥의 소비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우리 나라의 食品消費패턴도 현재의 米麥中心의 傳統의패턴에서 西歐의인 패턴으로 變해갈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食品消費패턴의 變化는 반드시 올 것이고 앞으로 食糧生産은 畝는 좋은 간에 그같은 추세에 따라야 할 것이며, 農地를 비롯한 農業諸資源의 活用도 그같은 變化에 順應해나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生産할 수 있는 食品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내에서 國民이 消費하도록 國民의 食品소비패턴을 政府에서 유도해나간다는 하나의 政策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國民所得이 어느 水準以上이 되면 國民個個人的 消費嗜好를 政府가 規制해나가는 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사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밥이건 빵이건 가릴 餘地가 없고, 또 營養面에서도 쌀과 小麥이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80년대 中盤에 들어서서 所得이 3千달러를 넘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밥보다 간편한 糧食을 더 選好하게 될 때 억지로 밥을 먹으라고 강요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본다.

어쨌든 80년대 中盤에 가서는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는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嗜好와 營養에 기준을 둔 食單의 變化에 관심을 갖게 될 것만은 틀림없을 것 같다.

註1) 韓國開發院, 「長期經濟社會報告書 1977~91年」

2) 日本의 경우를 참작한 것임.

3) 宋啓源 「食糧과 農産物의 生産」, 大學新聞, 1978. 7. 18. 日字.

### Ⅲ. 쌀需給과 農地資源

위와 같은 前換 위에서는 쌀에 대한 需要量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1986年頃 國民 1人當 쌀消費量을 平均 90kg으로 예상한다면 全體國民扶養을 위한 쌀需要量은 약 378萬여 t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즈음에 논에서의 쌀生産量을 段收 460kg<sup>1</sup>으로 잡는다면 위의 需要量을 生産해내는 데에는 약 82만여 町步의 논이 確保되면 될 것이다.

한편 앞으로의 農地의 變化를 예상해 볼 때 經濟가 發達함에 따라 나타날 工場敷地面積의 擴大를 비롯하여 道路占有率의 증가, 人口增加에 따르는 宅地面積의 증가로 農地面積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國民의 食生活의 向上에 따르는 食品을 주어진 農地에서 生産해야 한다고 할 때 土地의 生産性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되어야 할 必要가 있다고 보여진다.

農業이 他産業의 發展을 위해서 寄與하는 方向으로 成長해 나가야 한다고 볼 때 一定한 耕地

面積에서 生産해 낼 수 있는 數量은 더욱 더 많아져야 하고 한편 食品消費패턴의 變化에 따르는 食品別生産調節을 위해서 農地利用上의 再調整이 반드시 따라야 하리라고 본다.

1976년도 현재 논 面積이 1백28만5천町步인데 대해서 1986년에 가서 약 82만여町步이면 못하다 할 때 논을 밭으로 轉換시켜나가는 事業은 이를 지금부터 서서히 추진시켜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우리는 이웃 나라 日本이 겪은 논을 밭으로 轉換하는 데에 따르는 莫大한 政府의 財政부담과 技術의인 어려움 등 많은 犧牲을 보아왔기 때문에 순조로운 轉換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對策을 세워 유도해 나갈 必要가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것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쌀의 段收를 계속 높여갈 수 있다는 것과 국민의 1人當 쌀消費량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前提 위에서의 구상으로서 앞으로는 벼品種의 改良事業을 비롯한 耕地整理, 灌溉施設의 改修 등 農地의 生産性を 높힐 研究와 投資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져 나가야 할 必要가 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현재의 耕地中 논의 一部가 畜產物을 비롯한 小麥 등 將來選好的 作物生産을 위해서 밭이나 果樹園으로 轉換되어지도록 서서히 構想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註1) 農業中央會 調査部, 農業統計要覽, 1977. p.139. 4次 5箇年 計劃期間中の 段收 年增加率 0.7%를 適用하였음.

#### IV. 쌀의 生産過剩에 따르는 諸 문제

農民들로 하여금 현재 논으로 이용되고 있는 耕地를 밭이나 果樹園으로 전환토록 誘導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이다. 그같이 어려운 문제에 말려들기 보다는 종전과 같은 템포로 쌀을 계속 증산케하고 그 증산되는 쌀을 食糧代身에 소비토록하는 方法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은 이것도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一人當 國民所得이 3千달러를 넘어 설 때에는 國民은 배불리 먹는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가지 營養素와 營養價를 감안하고 嗜好를 감안한 多樣한 食卓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쌀만으로서 배를 채우도록 강요하기는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農業生産品目 및 그 規模는 國民의 消費패턴의 變化에 순응해가는 方向으로 전환되어져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쌀의 自給을 이룩하고 이제는 남아 돌게됨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게까지 되었지만 食糧全體에 있어서는 아직도 自給을 못하고 있고 더욱이 國民의 選好變化에 상응하는 農產物을 生産하게 되자면 農業諸資源은 그 利用面에 있어서 變化를 가져와야 할 것만은 必然的인 사실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不足하여 外國으로부터 導人하고 있는 主要農產物을 볼 것 같으면 小麥을 비롯한 옥수수, 콩, 肉類, 참깨, 고추 등을 들 수 있다. 76년도에 輸入한 小麥은 171萬여 t에 옥수수가 859千여 t, 大豆가 119千여 t 이었고 밀의 自給度는 4.5%에 지나지 않으며 옥수수에 있어서도 6.2%에 지나지 않는다.<sup>1</sup> 그리고 콩이 74.4%로 다소 높은 편이나 國內生産量으로서는 모자란 형편이다.

따라서 남아도는 쌀생산에 活用되고 있는 農

지를 비롯한 農業勞動, 農用資材 및 資金 등을 모자라는 農產物의 生産을 위하여 轉用토록한다면 쌀의 過剩生産과 不足農產物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우리 나라의 大部分農民은 비교적 작은 面積에서 自己家族用 食糧을 해결하기 위해서 生産하는 生計農家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農事를 그만두고 果樹나 소나 또는 小麥을 生産하라고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지질 않을 것이다.

즉 農家別 將來人氣品目에 대한 選擇의擴大는 오히려 進取的인 農家에 기대할 수 밖에는 없고 논의 밭으로의 轉換도 오히려 이들 進取的인 農家に 기대할 수 밖에 없을 일인지도 모른다.

바꾸어 말하면 논의 밭으로의 轉換은 農水産物別相對價格의 變化를 비롯한 資金融資面에서의 特惠 또는 販路의 保障등 特別措置없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다만 쌀生産문제를 이대로 놓아둘 수는 없는 문제이고 큰 凶作을 맞지 않는 限 쌀의 過剩量은 매년 불어날 것이 예상되고 이것을 政府에서 수매하고 搗精하고 保管하는데 소요되는 投資額과 管理資金規模는 年次的으로 累增되어갈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쌀의 輸入을 원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 國際쌀값이 t當 250달러 안팎의 낮은 상황하에서는 輸出의 길이 막혀 있는데다가 오래 貯藏할 때에 發生하는 變質문제 때문에 쌀의 增産趨勢를 그대로 放置할 수는 없는 문제일 것이다.

쌀이 남아 들때에는 자연 그 穀價는 떨어지기 마련이고 政府의 적극적인 쌀값支持政策을 바란다는 것도 무리일 것이고 穀價가 하락하면 農家所得이 낮아지는 결과도 必然的으로 따르게 될

것이다.

農家の 立場에서 보더라도 所得의 增大가 수반되지 않는 쌀의 增産이란 無意味한 것일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기전에 미리미리 政策을 세워서 適正數量의 쌀을 生産하는데 必要한 資源規模를 確保하고 그 밖의 資源을 轉用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현재 부족하여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肉類를 비롯해서 小麥, 콩, 옥수수 등의 相對價格을 높아지도록 誘導함으로써 農業諸資源利用上의 再編成을 꾀하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은 農業諸資源 再編成過程에서 쌀生産을 위한 面積이 過度로 縮小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農事農家에 대한 所得保障方法은 차차 어려워지는 쌀값支持보다는 租稅減免의 方法을 통해서 生産費用을 節減시킬 수 있는 方法으로 施策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같은 農業生産諸資源의 再編成의 難堪性은 우리가 이웃 日本에서 先例를 보아왔다.

日本政府는 이 事業을 위해서 近來年間 日貨 2千億엔의 財政負擔<sup>2)</sup>을 하고 있고 77년부터 논을 밭으로 轉換하는 農家에 대하여는 特別加算金으로서 1段步當 1만엔을 追加交付하고 있는 매우 큰 犧牲을 치루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現狀態를 그대로 放置해 둔다면 日本과 꼭 같은 어려운 處地에 놓이게 될 것은 뻔한 사실이다.

註1) 農協中央會 調査部, 農業統計要覽, p.104.

2) 家の光協會, 日本農業年鑑, 1978. p.132.

## V. 生産計劃의 再調整과 資源利用計劃

現在 어떠한 作物은 남아도는가 하면 또 어떠

한 作物은 크게 모자라 作物別 需給上의 不均衡을 보게 되고 모자란 品目에 대한 輸入의 不可避한 現象, 그리고 그 輸入은 不足한 特定農産物의 生産을 더욱 압박한다는 사실 등 全體의인 食糧自給의 達成을 어렵게 하고 있는 現實情을 이제는 是正해갈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쌀의 自給이 되지 않아 이의 增産을 위해서 農業部門에서 사용할 수 있는 人的 및 物的 諸資源과 政府의 支援施策이 全的으로 動員되어야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쌀의 自給을 이루었으므로 그동안 全的으로 輸入에 의존하다시피 했던 小麥이나 飼料를 비롯한 畜産物등의 增産을 위해서 資源을 轉用할 수 있는 餘力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지난 10年餘동안 經濟가 高度로 成長해 왔고 이러한 高度成長은 앞으로도 80年代中盤까지는 계속되어 지리라고 내다 볼때 國民階層間에 다소의 不均衡的 所得配分은 있다손 치더라도 中産所得階層의 成長과 더불어 國民의 全般的인 所得도 向上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따라서 國民의 食品消費패턴이 變하고 특히 食品別 選好傾向에 있어서 앞으로 10년간에 비교적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變化에 발맞춰 農業의 作物別 生産目標가 再編成되어야 하고 可用의 農業諸資源은 農地이든 投入財이든 또는 勞動이든 간에 한편으로는 作物의 選擇的 擴大를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作物의 選擇的 縮少를 위해서 資源利用上의 變化가 와야 할 것이다.

이것은 全體農業諸資源의 綜合的인 利用計劃의 再檢討와 各地域別 農地利用計劃의 再調整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實踐에 옮기는 實踐手段과 方法으로서는 各種의 技術的 經濟的 및 財政

的인 것을 適切하고도 合理的으로 活用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農業有關機關員들은 장래의 變化에 適切히 對處해나가기 위하여는 이 어려움을 克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어려움이란 現在까지 힘들여 이룩해놓은 쌀 自給體制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資源利用面의 再調整을 加해야 하고 作物別 選擇的 擴大를 피하는데 있어서 지난날과 같이 몇개의 굵직한 技術的 經濟的手段이나 方法, 이를테면 品種改良이나 價格支持와 같은 것만으로서 큰 成果를 올리는 어려운 段階에 들어서 있는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地域別 作物生産의 再調整의 경우 어느 作物에 대해서는 技術的 支援를 重點的으로 해야 할 것이고 다른 作物에 있어서는 市場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또는 어느 作物에 있어서는 資金을 지원준다든가 등등 作物別 支援手段의 종류와 가지數가 달라져야 하리라고 보며 그 만큼 앞으로는 충분한 現況把握과 專門的인 지도 및 支援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앞으로의 變化에 對處해 나갈수 있는 農業이 되기 위하여는 장래의 있을직한 變化를 옳바르게 추정하고 各種農産物의 生産計劃을 總體的으로 樹立함과 아울러 이를 地域的生產계획과 一致시키는 全農土利用의 計劃化에 重點을 두되 計劃目標가 實踐에 옮겨질 수 있도록 各種의 方法과 手段을 적절하게 活用할 態勢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며 그 필요성이 쌀自給이 達成된 후에 더욱 切實해졌다 할 수 있다.

이 점을 특히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긴 眼目에서 1人當 쌀소비가 줄게 될 것이라든가, 現在의 쌀增産템포가 지나치게 빠른 템포에 있다든가 하는 점을 감안,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쌀의

過剩生産을 적절한 方法으로서 미연에 방지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고는 하지만 쌀의 段收를 높힐 方案을 等閑視한다든가, 米作農家의 所得을 停滯시킬 政策上의 어떠한 解弛도 있어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農土利用의 계획화를 提起하고자 하는 것이다.

## VI. 結 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80年代 中盤에 들어 서게 되면 國民의 食品消費패턴이 크게 달라질 것이고 澱粉比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反面 動物性食品消費를 통한 高單位蛋白質과 脂肪質을 더 많이 攝取하게 될 것이고 한편 攝取칼로리에 있어서도 年間 2,780칼로리<sup>1)</sup>에 肉薄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그때에 가서는 人口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쌀에 대한 需要는 1人當所要量이 現在의 약 120kg에서 90kg정도로 약 30kg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國民全體의 쌀 需要量도 약 3백80만여 t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한편 農地는 工業化내지 產業近代化過程으로 인해서, 그리고 大·中·小都市를 막론한 大部分이 肥大化해감에 따라서 農地는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줄어드는 農地위에서 現在 모자란 食糧을 증산 확보하자면 農業의 生産性은 더욱 더 증대되어야 할 處地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쌀을 생산하는데 있어서도 앞으로 面積을 줄이고 一定한 面積에서 收量을 높히는 方向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쌀의 自給達成을 위해서 그 동안 기울여온 大部分의 努力이 앞으로 도 그대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벼品種改良도 灌溉改良도 投入財의 증산도 勞働의 質의向上과 經營能力의 涵養도 모두 중

전과 다름없이 계속되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벼品種改良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쌀消費가 급격히 줄지 않도록 增收力과 아울러 맛이 좋은 品種으로 改良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쌀生産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쌀增產政策에 대해서 어떠한 調整을 加해야 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現在の 빠른 趨勢를 계속 放置해 둔다면 쌀은 계속 남아돌게 되고 在庫量이 累增함으로써 政府財政負擔의 증가를 비롯한 農家所得의 停滯, 農業資源의 浪費등 허다한 弊害와 副作用을 가져올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나라 쌀을 좋은 값으로 사줄 國家가 나타난다면 별문제이지만 요행을 바라고 農業을 疎忽할 수는 없는 문제인 때문이다.

이같이 쌀增產政策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段收를 높히는 生産性提高手段에 대해서 制動을 걸어서는 안될 것이고 쌀栽培面積의 一部를 直接的으로나 間接적으로 不足한 農產物增產에 轉用할 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小麥은 例外라 하더라도 옥수수를 비롯한 肉類, 콩, 고추, 참깨 등은 우리가 조금만 계획 세워 증산토록 한다면 輸入하지 않고도 自給할 수 있는 作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나라가 앞으로도 建設業을 비롯한 電子製品 및 綿製品 등의 海外輸出을 통한 많은 外貨를 벌어들일 수 있으리라고 볼 때 若干의 農產物輸入을 크게 우려할만한 理由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크게 外國에 의존하고 있는 小麥粉을 비롯한 飼料用穀物등의 增產과 自給을 위한 노력은 쌀自給을 達成한 오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餘力을 갖게된 農地를 비롯한 諸資源의 合理

的이고도 集約的인 利用을 통해서 이를 기울릴 수 있는 時點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앞으로의 農業諸資源 利用施策이 단순히 小麥이나 옥수수증산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앞으로 國民所得增大에 따라서 急變하게 될 國民의 食品消費패턴의 變化를 감안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選擇的으로 擴大할 것과 縮少할 것을 가려낸 후에 農地利用上의 再調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같은 課業은 몇가지 畚積畚積한 手段이나 方法만으로써 成就되어질 수는 없고 보다 精密한 地域的 特性의 判斷 위에서 보다 細分되어진 作目別 特性에 알맞는 技術에 重點에 둔다든가 또는 어느 作目に 대하여는 販路 確保에 重點을 두는 등 보다 더 多樣하고 치밀

한 계획과 手段 및 方法으로써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한 次元높은 지도와 支援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앞으로 강구되어야 할 施策上의 轉換은 農地를 비롯한 農業諸資源의 總體的 再調整計劃을 수립하는 일과 새 計劃에 따르는 地域계획의 수립과 이들의 추진에 두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로서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쌀의 過剩과 農家所得의 停滯를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 일어난 變化에 對處해 나갈 수 있는 農業生產體制를 갖추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註1) 農水産部 農業經營研究所, 韓國農業開發戰略分析(1971~1985) p. 153.